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6. 9

Check Point

- 1~4 월 EV 판매 증가율 둔화세 지속
- EV 향 배터리 각형 및 LFP M/S 확대 지속
- 수요 비중 가장 큰 EV 향 data 다소 우려

1분기 ESS data 및 이슈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글로벌 ESS 출하량 196GWh, 전년비 78% 성장

SNE Research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ESS 출하량은 196GWh로 전년 동기 110GWh 대비 약 78% 증가. 모든 지역과 용도에서 두 자릿수 성장 기록, 특히 가정용 ESS 수요가 크게 확대, 중국의 지역 성장세 두드러져. 이에 따라 EV에서처럼 ESS에서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91GWh(+52%)로 여전히 시장의 47% 차지하나, 성장률 기준 기타 지역(+138%)이 가장 높았고, 유럽(+107%)와 북미(+83%)가 뒤를 이어. 이에 따라 ESS내 중국 지역 비중은 전년 55%에서 47%로 하락, 기타 지역 비중 확대

용도별로는 전력망용(Grid)이 156GWh로 전체 75%, 가정용은 전년 7GWh에서 21GWh로 점유율 6%에서 11%로 확대. 상업용(C&I) 역시 전년대비 74% 성장. LGES M/S는 전년비 1.3%p 증가한 2.7%, 반면 SDI는 전년비 0.5%p 감소한 1.5%로 EV향 배터리와 같이 M/S 하락 시현. 양사 소계 글로벌 한국 ESS M/S는 4.2%. Gotion(VW Group 최대주주) 및 미국 AESC(Fixx Energy가 AESC의 테네시 배터리 공장 지분 과반수 인수)를 중국계로 간주하면 글로벌 중국계 M/S는 파나소닉과 한국을 제외한 약 95% 내외

우리는 '25년 글로벌 이차전지 전체 수요에서 EV향 63%, ESS 30%, 기타 7%로 추산. EV향에서 북미 비중 11%, ESS에서 15%로 북미 EV향 수요는 글로벌 전체의 7.3%, ESS는 4.4%로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에서 북미 비중은 약 12% 내외. '25년 미국 ESS에서 중국 M/S 약 80~90%로 추산. '26년은 FEOC 우회 및 FEOC 및 관세 인상 앞둔 선구매 중국 재고, 비중국사간 경쟁 영향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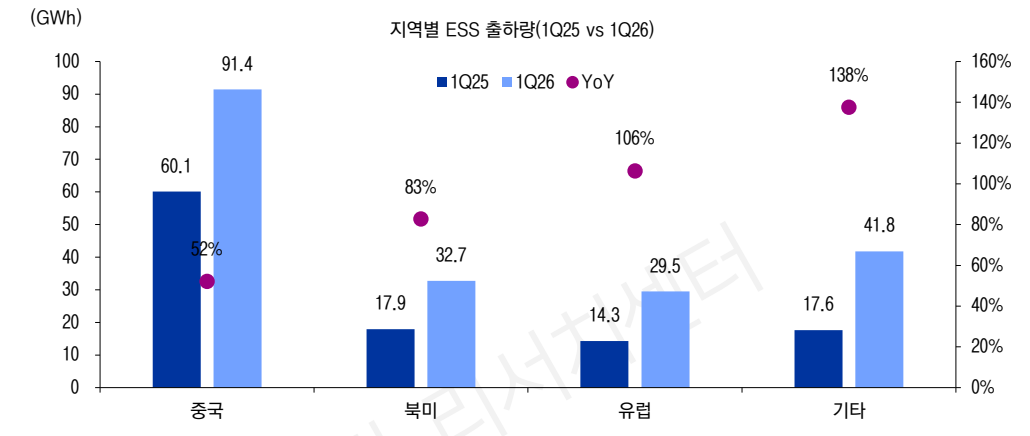
미국 ESS 경쟁사 투자 현황

미국 ESS 시장은 FEOC와 중국 ESS 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주요 타겟 시장. 그러나 미국 ESS 시장은 경쟁사들 역시 타겟, ESS 신증설을 계획, 진행중. '26년 미국 비중국 ESS 투자는 미국 OEM의 ESS 진출 및 일본/유럽계 EV향의 ESS 전환으로 요약.

5월 포드는 에너지 자회사 Ford Energy 출범, 켄터키 ESS 20GWh 신설 발표. 동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 및 EV 자산 상각 처리에 따른 돌파구로 BESS 전문사인 Ford Energy 출범. 당초 SK 온과의 합작 등 EV용으로 기획되었던 켄터키주 글렌데일 배터리 제조시설 일부를 포드 단독 소유 ESS 전용 생산라인으로 전환 발표. 최소 20GWh/연 규모로 첫 인도 목표 '27년 말. '26년 3월 파나소닉은 Panasonic Energy를 통해 기존 공급망 전략을 수정 발표. 일본 생산 라인과 더불어 북미 '25년 완공한 캔사스 전기차 EV향 배터리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 방안 공식 수립. 이와 동시에 멕시코 모듈 공장 인근에 ESS 모듈 공장을 추가 신설하는 계획도 구체화 발표, 이에 따르면 '26~'27년 순차 전환 및 양산 돌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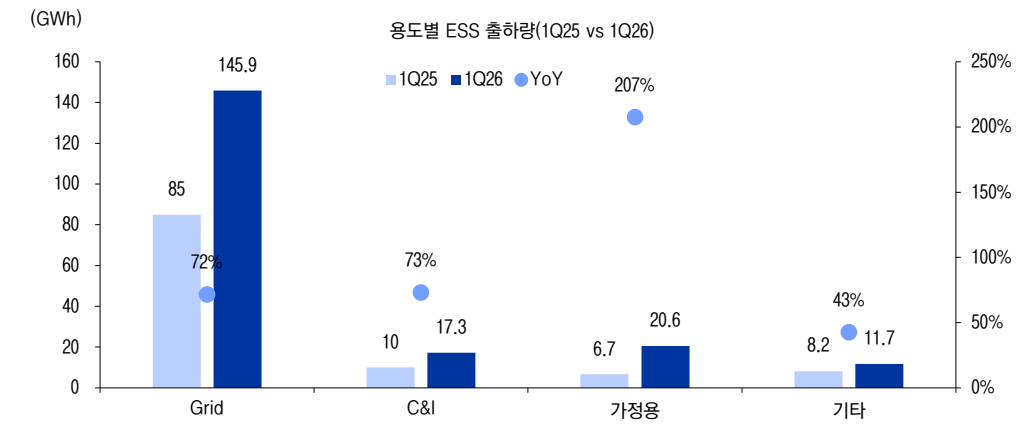
3월 AESC는 '12년부터 닛산 리프(Nissan LEAF)용 EV 배터리를 생산하던 테네시주 스미르나 기가팩토리를 ESS 전용 LFP라인으로 설비 개조를 완료, 전격 생산 돌입 발표. AESC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공장은 EV용(BMW용)으로 유지하되 테네시를 북미 ESS 공급의 핵심기지로 삼음. 참고로 TESLA의 네바다 기가팩토리 ESS Capa는 7GWh로 최종 10GWh 계획, EV/ESS 겸용 4680 원통형 증설 계획(네바다 & 텍사스, 동일 지역 파나소닉 38+35GWh 공장 위치). Gotion High-Tech(VW China Investment 최대 주주)는 일리노이 만테노 20억 달러 규모 ESS 기가팩토리 본격 양산. 미국 FEOC 우회 위해 현지 고용 및 파트너십 체제 강화

그림1 1분기 지역별 ESS 출하량 및 전년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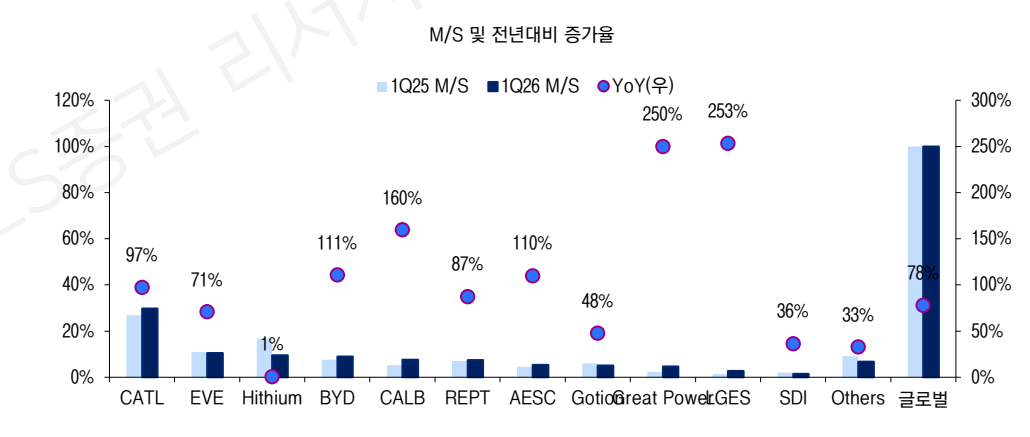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분기 용도별 ESS 출하량 및 전년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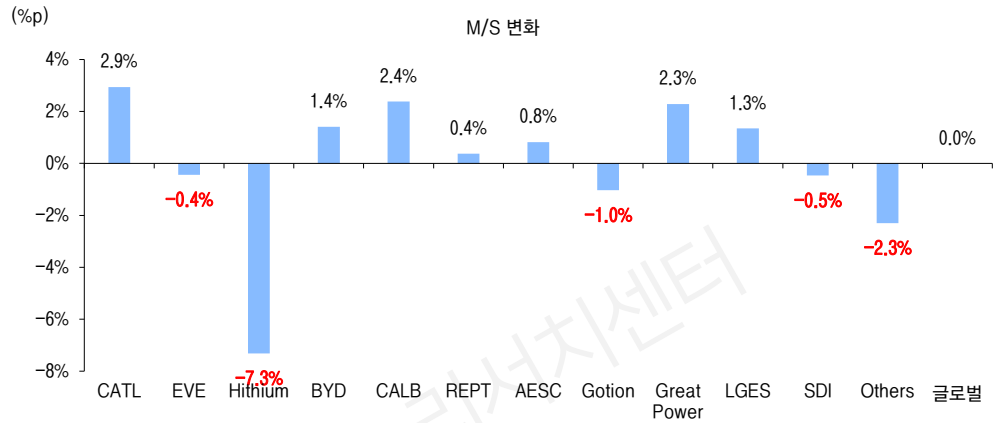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요 회사 M/S 및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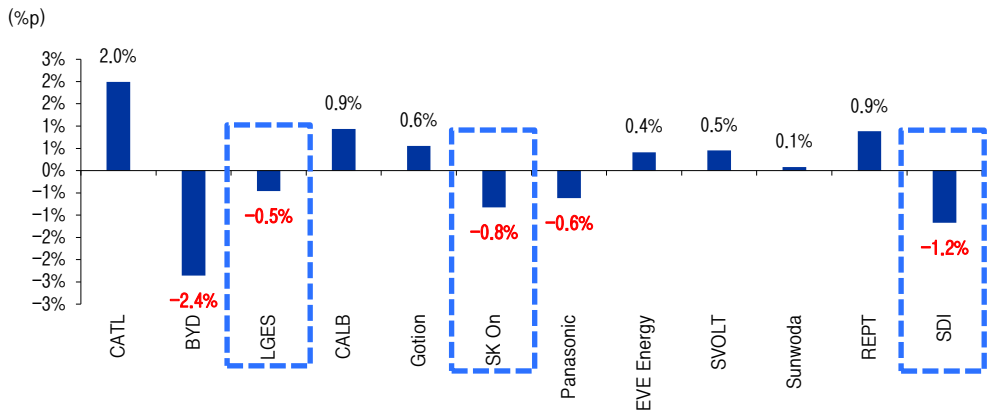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M/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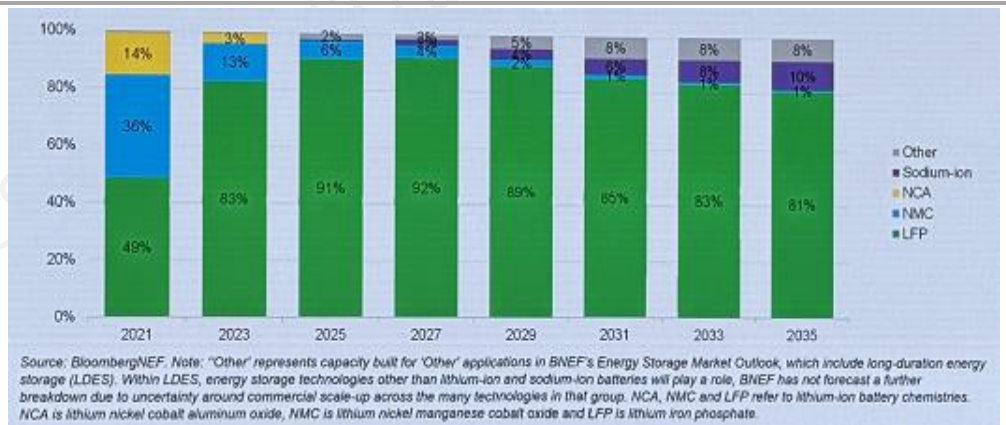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전년대비 EV 향 배터리 M/S 변화율(1~4 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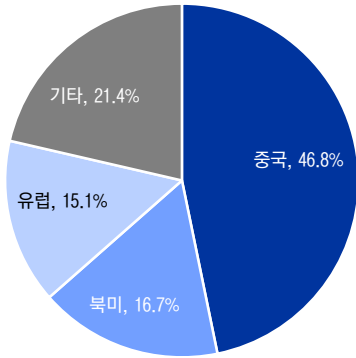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2026.05),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ESS Chemistr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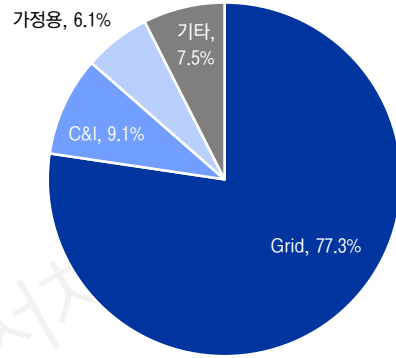
자료: BNEF(2026.03), InterBattery Conferenc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1분기 지역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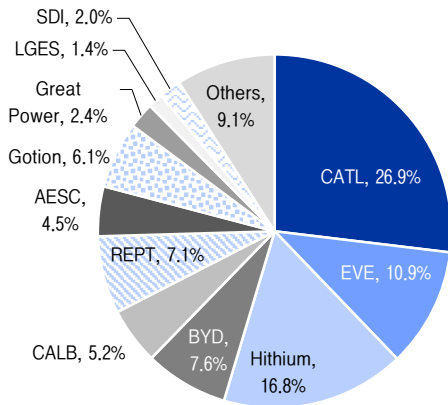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1분기 용도별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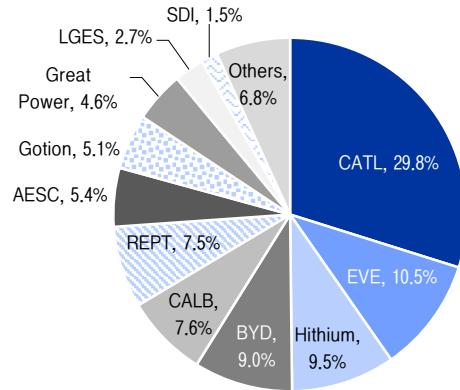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1Q25 회사별 ESS M/S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1Q26 회사별 ESS M/S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파나소닉 분기별 실적 테이블

Panasonic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2025	2026	2027E	2028E
매출액	13,619	14,297	14,128	13,479	13,126	13,047	13,391	13,804	55,523	53,470	48,963	51,076.9
YoY(%)	-7.8%	-1.1%	-4.3%	-8.8%	-3.6%	-8.7%	-5.2%	2.4%	-5.5%	-3.7%	-8.4%	4.3%
QoQ(%)	-7.9%	5.0%	-1.2%	-4.6%	-2.6%	-0.6%	2.6%	3.1%				
Lifestyle	5,236	5,479	5,660	5,711	5,502	5,422	5,472	-	22,087	-		
Connect	1,758	1,990	2,026	2,398	2,006	2,119	2,174	2,444	8,172	8,744		
Industry	1,441	1,436	1,499	1,660	1,894	1,860	1,827	1,837	6,037	7,418		
Energy	1,281	1,394	1,334	1,431	1,446	1,470	1,637	1,678	5,440	6,230		
Others	3,902	3,998	3,608	2,279	2,279	2,176	2,281	7,845	13,787	31,078		
영업이익	560	833	804	928	608	483	-111	871	3,120	1,864	3,605	4,378
YoY(%)	-16.5%	22.6%	-9.5%	250.2%	8.5%	-42.0%	적전	-6.2%	24.8%	-40.2%	93.4%	21.4%
QoQ(%)	111.5%	48.6%	-3.5%	15.5%	-34.5%	-20.6%	적전	흑전				
세전이익	672	983	949	1,045	630	589	-4	884	3,643	2,123	3,722	4,505
YoY(%)	-15.1%	22.7%	-4.1%	적전	-6.3%	-40.0%	적전	-15.5%	22.5%	-41.7%	75.3%	21.0%
QoQ(%)	69.8%	46.2%	-3.4%	적전	흑전	-6.4%	적전	흑전				
순이익	489	824	721	496	533	511	-88	777	2,524	1,541	2,798	3,421
YoY(%)	-67.4%	30.2%	-8.4%	43.8%	9.0%	-37.9%	적전	56.6%	-21.7%	-38.9%	81.6%	22.3%
QoQ(%)	41.8%	68.3%	-12.5%	-31.2%	7.5%	-4.2%	적전	흑전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분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3% 10.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4. 1 ~ 2026.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